



이름 : 부들

물가나 연못, 늪지에 주로 서식하는 외떡잎식물이다. 줄기는 곧고 꽃이삭은 타원형이며 길이는 1~1.5 m이다.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 동부,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즉 서태평양에 접한 지역 전반에 분포한다

수생식물이지만 뿌리만 진흙에 고정되고 잎과 줄기는 물 밖으로 나와 자란다. 주로 6~7월에 꽃이삭이 달리고 꽃이 핀다. 그래서 꽃가루받이를 초여름에 하는데, 이때 몸체가 부들부들 떨어져 '부들'이란 이름이 붙었다 한다. 부들 잎과 꽃이삭의 감촉이 보들보들해서 '부들'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언뜻 보면 소시지처럼 생긴 갈색 꽃이삭이 제일 큰 특징이다. 처음 날 때는 위에 수꽃이삭, 아래에 암꽃이삭으로 한 쌍씩 난다. 그러다가 수분되면 수꽃이삭은 꽃가루를 다 날리고 떨어져 검은색 흔적만 남기고, 암꽃이삭은 위 사진처럼 길이가 7~10 cm 남짓한 갈색 열매 모양으로 변한다. 암꽃이삭이 변한 열매 안은 하얀 솜털을 단 씨앗으로 가득하다.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열매가 부서지면서 안에 있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따스한 가을날 해질녘에 함박눈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흩날리는 모습은 단연 압권이다.